

카페 프란스

움겨다 심은 棕櫚나무 밑에
빛두루 쓴 장명등,
카페 프란스에 가자.

이놈은 루바쉬카
또 한놈은 보헤미안 넥타이
뺏적 마른 놈이 압장을 썼다.

밤비는 뱀눈 처럼 가는데
페이브먼트에 흐늬이는 불빛
카페 프란스에 가자.

이 놈의 머리는 빛두른 능금
또 한놈의 心臟은 벌레 먹은 薔薇
제비 처럼 젖은 놈이 뛰여 간다.

『오오 패롤(鸚鵡) 서방! 곧 이브닝!』

『곧 이브닝!』(이 친구 어떠하시오?)

鬱金香 아가씨는 이밤에도
更紗 커튼 밑에서 조시는구료!

나는 子爵의 아들도 아모것도 아니란다.
남달리(손) 히여서 슬프구나!

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
大理石 테이블에 닳는 내뺨이 슬프구나!

오오, 異國種강아지야
내발을 빨어다오.
내발을 빨어다오.